

‘포수 전설’ 진갑용 vs 홍성흔... ‘감독판’이 기대되는 이유



이경호의 외야석

진갑용 삼성 트레이드 전까지 치열한 경쟁 김태형 감독 “청백전 할때도 변화구 사인” 이전 나란히 지도자 수업 ‘라이벌 2탄’ 기대

1996년 시즌 후반 서울라이벌 OB(현 두산)과 LG는 치열한 끝까지경쟁을 펼쳤다. 9월 양 팀은 사이 좋게 6연패도 당했다. ‘승자(?)’는 OB였다. 47승 73패6무로 50승71패5무로 시즌을 마친 LG를 제치고 골짜기 8위를 차지했다. 언론은 물론 팬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양 팀 관계자들의 답변은 결박이었다. “포스트시즌 진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내년을 대비해 2군 선수들에게 최대한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 말을 믿는 팬은 없었다.

당시 신인 드래프트 2차지명은 그 해 순위 역순으로 지명 순서를 정했다. 고려대 4학년에는 부산고가 배출한 국가대표 애시 손민한과 10년 만에



한 시대를 풍미한 포수 진갑용(왼쪽)과 홍성흔은 이제 유니폼을 벗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 진갑용은 일본 소프트뱅크에서, 홍성흔은 미국 샌디에이고 산하 루키팀에서 지도자 수업을 받고 있다. 먼 훗날 맞은 번 덕아웃에서 이들이 맞대결을 펼칠 날이 올까. 스포츠동아 DB

한번 나올까 말까한 포수라는 극찬을 받은 진갑용이 있었다. 롯데가 1차 지명으로 한명을 택하면 다른 한명은 2차 지명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였다. 롯데는 고민 끝에 손민한을 1차 지명했고,

OB는 함박웃음을 지으며 2차 전체 1순위로 진갑용을 택했다. 진갑용은 아마추어시절 애틀랜타를 람빅대표팀에서 2차례 4번, 5차례 5번 타자로 출전하는 등 공격능력도 대단했다.

그러나 1999년부터 팀 이름을 바꾼 두산의 새로운 안방마님의 주인공은 1999년 1차 지명한 홍성흔이었다. 홍성흔은 경희대 4학년 때 사상 처음으로 프로야구선수들이 아마추어대회에 참가해 ‘드림팀 1기’로 꼽히는 1998년 방콕아시아 게임대표팀에 선발되는 등 주목받는 포수였다.

당시 방콕아시아게임대표팀 포수 3명은 프로 3년차 진갑용, 2년차 조인성, 그리고 대학교 4학년 홍성흔이었다.

두산은 1999년 신인지명 때 권오준, 유동훈 등 지역 연고지 출신 투수들을 외면하고 포수 홍성흔을 택했다. 이미 베테랑 포수 김태형(현 두산 감독)과 최고의 유망주로 꼽히는 진갑용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포수 포지션을 중시하는 팀 철학은 홍성흔이 정답이었다. 진갑용과 홍성흔이 인생이 걸린 선의의 라이벌로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이었다.

1999년 당시 10년차 포수였던 김태형 감독은 “스프링캠프부터 진갑용과 홍성흔의 경쟁이 대단했다. 청백전을 할 때 같은 포수가 타석에 서면 복잡하지 않게 사인을 내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었는데, 홍성흔은 진갑용이 나오자 몸쪽 붙이고 다양한 변화구 사인 내는 모습을 보고 한참을 웃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결국 두산은 1999시즌 교통정리에 나섰다. 시즌 중반 진갑용을 삼성에 트레이드했다. KB O리그의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었다. 삼성에서 조범현 배터리 코치를 만나 최고의 수비능력을 갖춘 포수로 진화한 진갑용은 무려 7차례나 팀을 한국시리즈 정상으로 이끌었다.

홍성흔도 두산에서 국가대표 포수로 명성을 날렸다. 선수생활 후반기는 전문 지명타자로 변신해 특급 타자 반열에도 올랐다.

2000년대 삼성과 두산에서 리그 최고의 포수로 자웅을 겨뤘던 진갑용과 홍성흔은 영광스러운 선수생활을 마무리하고 지도자로 변신을 준비 중이다. 뛰어난 화술을 자랑하는 진갑용, 홍성흔은 모두 은퇴 직후 방송사에서 해설자로 거

역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 그러나 모두 해외 연수를 택하며 미래의 감독으로 진화 중이다.

2015시즌을 끝으로 우승한지 7개와 함께 은퇴한 진갑용은 일본 소프트뱅크에서 연수 중이다. 진갑용은 “매일매일 소프트뱅크의 훈련을 보고 느낀 점을 보고서로 작성하고 있다. 1군 주전수도 수비 훈련 때 실수가 나오면 완벽해 질 때까지 반복을 한다. 전술과 육성 등 많은 부분을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홍성흔도 방송사의 치열한 스카우트를 마다하고 미국 샌디에이고 산하 루키 팀에서 연수 중이다. “메이저리그에서 정식 코치가 되고 싶다”는 큰 꿈을 그리며 영어공부도 열심히 한다.

두산은 이제 포수사관학교를 넘어 베이스 포수 출신 명장들을 배출하고 있다. 진갑용과 홍성흔은 이미 선수시절 뛰어난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양 쪽 덕아웃에서 마주보고 경기를 지휘할 베이스 포수 출신 감독도 이별 대결 2탄이 기다려지는 이유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추신수, 4일만에 3호 홈런 텍사스 추신수(오른쪽)가 1일(한국시간) 홈구장 글로브라이프파크에서 열린 LA 에인절스전에서 5회 솔로홈런을 날렸다. 지난달 27일 미네소타전 이후 4일 만에 터뜨린 시즌 3호 홈런이다. AP뉴시스

류현진, 점입가경 다저스 선발경쟁 이겨낼까?

유망주 유리아스 SF전 5.2이닝 1실점 매카시, 방어율 3.10...마에다도 V투

‘코리안 몬스터’의 부활이 다저스 선발진의 판을 뒤흔들까. 류현진(30·LA 다저스)이 선발 경쟁 속에서 시즌 첫 승리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다저스는 현재 6명의 선발투수로 로테이션을 운영 중이다. 아직 선발진에서 제외될 투수가 공표되지 않았지만, 곧 5선발 체제로 환원된다. 다저스는 올 시즌 투구이닝을 관리할 정도로 애지중지하는 유망주 홀리우 유리아스를 조기에 빅리그로 졸업하며 선발 경쟁을 부추겼다. 좌완 유리아스는 지난달 28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전에서 5.2이닝 1실점하며 기대치를 증명했다.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4승1패 방어율 2.29)와 유리아스의 입지는 굳건하다. 여기에 류현진과 같은 부상 복귀선수인 우완 브랜든 매카시가 5경기서 3승무패 방어율 3.10으로 선전하며 한 자리를 굳히는 모양새다. 선발진에 유독 왼손투수가 많은 팀 사정상 매카시의 경쟁력은 충분하다.

리치 힐의 부상으로 선발 자리를 꿰찬 좌완 알렉스 우드는 5경기(3경기 선발)서 1승 1홀드 방어율 2.29로 선전 중이다. 4월 27일 샌프란시스코전에선 승리가 날아갔지만 6이닝 1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그러나 선발투수가 넘치는 상황에서 개막을 불펜에서 맞이한 만큼, 또 다시 중간계투로 보직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

마에다 겐타는 오른손투수의 이점이 있지만, 부진이 문제다. 5경기서 2승2패 방어율 6.58을 기록 중이다. 그런데 이런 마에다마저 4월29일

필라델피아전에서 7이닝 2실점으로 부진 탈출의 기회를 보였다.

메이저리그에서 불펜 경험이 없는 류현진은 마이너리그 거부권이라는 이점이 있다. 등판을 거듭하면서 회복세를 보이는 것도 호재다. 4월 25일 샌프란시스코전 6이닝 1실점 호투에 이어 1일 필라델피아전에선 5.1이닝 1실점으로 첫 승을 신고했다. 초반 부진으로 치솟은 방어율도 4.05까지 낮췄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1일 경기 후 “류현진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난 다섯 차례 등판에서 장타도 있었지만 까다로운 공을 던졌다. 어려서 시기를 잘 이겨냈고,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선발진 변동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이경호 기자 nirvana@donga.com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외인선수 전쟁공포감 ‘매뉴얼’이 필요한 때



취재파일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1. 안보위협(북한의 도발 등) KBO와 구단들이 외국인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가?
2. 비상사태시 심각한 위협으로부터 선수들과 구단을 보호하기 위해 시즌 중단과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가?
3. KBO와 구단들은 안보위협 또는 비상사태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선수들에게 제공하는 절차가 있는가?
4. 선수계약상 안보상의 문제로 선수가 경기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5. 안보상 비상사태 발생시 외국인선수들이 그들 대사관과 연결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이상은 최근 메이저리그 선수노조(MLBPA)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KPBPA·선수협)에 보낸 문의내용이다. 요즘 KBO리그 각 구단마다 수준급의 실력을 지닌 전직 메이저리거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MLBPA 차원에서 한국의 안보상황에 대해 체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한반도 정세가 심상찮게 돌아가자 외국인선수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동해에 진입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보도되고 있다. 그러자 외국인 선수도 선수지만, 자국에 있는 가족들의 걱정이 더 큰 듯하다.

남북한 대치 국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이 야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할 수 있지만, 입장

을 바꿔 놓고 보면 외국인선수들과 그 가족들의 불안감과 공포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선수협 김선용 사무총장은 MLBPA측에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은 낮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보냈다. 그러나 선수협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선수들이긴 하지만 이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제도와 장치를 만들 필요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KBO측에 MLBPA가 보낸 문의 내용을 알리고 최근 실무자끼리 만나 협의를 했다.

물론 현재 KBO규약이나 KBO리그규정 상으로는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뚜렷한 매뉴얼이 없는 게 사실이다. 외국인선수들도 당연히 한국인들처럼 민방위대원통제본부 등의 통제를 따르며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외국인들은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심리가 더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로만 안심시킬 것이 아니라, 미리 만든 영문 매뉴얼이라도 제공한다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공포증에 시달리는 외국인선수들, 그리고 자국의 가족들은 한결 더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는 KBO리그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 종목의 외국인선수들에게도 해당되는 사안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혹은 관련 정부 부처 등과 협의하면 매뉴얼을 만드는 것쯤은 그리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이에 앞서 KBO와 각 구단 실무자들도 이를 공론화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불안감에 떨고 있는 외국인선수들에 대한 작은 배려일지 모른다. MLBPA에서 선수협에 문의한 내용을 두고 ‘호들갑’이라고 무시하기보다는 그들의 불안심리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삼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한화 홈승률 ‘0.273’...독이 된 홈 훈련



취재파일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1일까지 한화의 홈경기 성적은 3승8패다. 리그 최하위(10위) 삼성(3승8패1무)과 홈 승률(0.273)이 같다. 원정에서 7승8패(승률 0.467)로 선전한 점을 고려하면, 홈경기 부진이 더욱 뼈아프게 느껴진다. 팀 성적도 10승16패로 9위다.

사실 ‘홈경기에서 부진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듣기 어렵다. 지난해 홈경기 성적이 원정경기에 비해 월등히 좋았던 한 선수는 “경기를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연습할 시간도 충분하다. 팬들의 뜨거운 응원에 큰 힘이 된다”며 “원정경기 때는 이동거리가 길고, 상대 팀과 견주 훈련시간이 적은 탓에 신경 써야할 부분이 많다”고만 했다. 교과서적인 답변이다.

그러나 한화의 경우는 다르다. 야구관계자들은 “한화 홈경기에서 부진한 이유가 다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하나같이 ‘훈련 패턴’을 문제로 지적한다. 김성근 감독이 부임한 이후 상상을 초월하는 훈련량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올해는 그 강도가 더 세졌다. 5월까지 토요일 오후 5시, 일요일 오후 2시에 경기를 시작하는데,

홈에서 주말 3연전을 치를 때 이에 따른 ‘극단적 비효율’이 나타난다.

한화 선수 일부는 4월29일 대전 넥센전에서 3-7로 패한 뒤 경기장에 남아 나머지 훈련을 했다. 3시간34분 동안 그라운드에 모든 것을 쏟아낸 뒤였다.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야간 특별타격훈련(특타)이 진행됐고, 평고를 받은 선수도 있었다. 훈련 시간에 차이가 있을 뿐, 모든 홈경기에서 이 같은 훈련 패턴이 이어진다. 한 관계자는 “일요일 경기가 오후 2시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따른 선수들의 피로도와 체력소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일요일 홈경기 직후에도 훈련은 계속된다.

평일 홈경기 때도 오전부터 훈련을 시작하니 오히려 원정경기 때보다 체력소모가 크다. ‘잘 쉬는 것도 몸관라’라는 말은 김 감독 체제의 한화에서 통하지 않는다. 김 감독 부임 첫해인 2015시즌에는 원정경기 때도 일부 야수들이 인근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특타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이는 지난해 중반부터 사라졌다. “원정경기 때가 편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베타 선수들이 29일 경기 후 폭 쉬고 30일 오후 12시30분에야 출근해 시리즈 싸움에 성공한 것도 휴식의 중요성을 보여준 한 단면이다.